

1 # 한솔의 자취방 / 저녁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잔뜩 어질러져 발 디딜틈 없는 방바닥.

옷가지와 이불, 액자를 따라 화면이 흘러가다 쏟아진 약을 비추며 멈춘다.

바닥에 쓰러져있는 한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한솔의 시점으로 화면이 전환된다.천장에는 금붕어들이 돌아다니는 환영이 보인다.

금붕어1. 그거 알아? 죽은 사람이 꿈에 나와서, 뭔가 선물이랍시고 주거나, 어딘가 같이 가자고 하는건 그 사람을 길동무 삼으려고 하는거래. 뭔가 무서워~

금붕어2. ..그런가?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 꿈에 나와주면 기쁠것 같은데.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데리러온걸 수도 있잖아?

헤엄쳐 사라지는 금붕어들. 다시 바닥에 쓰러진 한솔을 비춘다.

한솔. 모르겠어... 이젠 다.. 끝내자. (입술을 핏씹으며 팔을 눈 위로 올려 시야를 가린다)

아득해져가는 한솔. 화면이 물결처럼 일렁인다. 흐릿해지는 화면에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 (띙동 효과음)

무시하는 한솔.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올 사람도 없고 조용히 있으면 돌아가겠거니 생각하며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자 이젠 미친듯이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한다. 옆집 사람들에게도 민폐라는 생각을 하며 비척비척 일어나 움직인다.

한솔. (현관문을 신경질적이게 열며) 대체.. 이런 시간에 상도덕이라는게 있...지....

현관문 너머를 보고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멈춘다, 한솔을 비춘채 대사가 먼저 보인다.

나린. 아하하,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죽상이야~ 나 안보고 싶었어?

한솔의 떨리는 눈동자를 클로즈업. 어렴풋이 나린이 비춰지는 눈동자 다음것으로 해맑게 웃고 있는 나린이 보인다.

한솔. 아.. 내가... 벌써 죽은건가? (얼굴부터 머리카락까지 천천히 손으로 쓸어올리며 중얼거린다. 낯이 나간듯 얼 빠진 표정)

현실부정을 하며 자신의 볼을 꼬집어본다. 무디게 느껴지는 감각에 어이없는 웃음을 뱉으며 한숨을 쉬는 한솔.

꿈이라면 차라리 즐기겠다며 눈을 지그시 감아본다.

2 / # 한솔의 자취방(꿈)

묘하게 바뀐 집 구조와 분위기. (이때부터 배경이 하늘색 모노톤으로 바뀐다.)

나린이 한솔을 지나쳐 먼저 안으로 들어간다. 한솔은 나린의 손에 이끌려 주방 식탁 앞까지 걸어간다.

방금 한 것 같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져 있다.

나린 이거 봐! 다 내가 만들었어. (한솔을 올려다 본다) 같이 먹어줄거지?

한솔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다.

한솔 (힘 없이 픽 웃는다) ...그래. 만드느라 고생 꽤 했겠는데? (조금 장난스러운 말투로)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고마워.

나린쪽의 의자를 먼저 빼주고 나린에게 앉으라는듯 바라본다. 생각에 잠긴 나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듯 입술을 꼭 다물지만 여전히 웃고 있다.

어디서 나온건지 모를 선물용으로 잘 포장된 잠옷세트를 꺼내는 나린.

나린 ... 아! 까먹을뻔 했네~ 이거 우리 커플 잠옷이야.

한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고개를 떨구며 앞서 말한것보다 조금 작게)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런건가...

나린 우리 이거 챙겨서 바다로 여행가자! 예쁜것도 보고, 같이 놀고, 같이 씻고, 그리고 같은 잠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해도 돼. 누워있다가 심심해지면 바다로 산책이라도 나가자. 우리, 바다에 가자.

의자를 잡고 있는 한솔의 손을 덮어 잡는 나린. 둘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선물용으로 포장 된 잠옷세트가 바닥에 툭 떨어지고 더 가까이 붙는다.

한솔이 먼저 나린에게 안긴다.

한솔 그래. 바다에 가자. 선물도 고마워.

눈을 감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나린의 어깨에 고개를 묻는 한솔. 또 한 번 주변이 일렁인다.

3 / # 바닷가 / (노을 지기 시작하는 저녁)

품에 안겨 있던 나린은 부서지듯 사라진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한솔.

바다에 이미 무릎까지 몸을 담군 나린이 보인다.

역광으로 인해 나린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다 점점 빠르게 나린에게 달려가는 한솔.

불안한 표정으로 나린의 팔을 붙잡는다. 그런 한솔을 그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바라만 보는 나린.

나린 ..눈치챘잖아. 나, 다 알아. (아까와는 다른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한솔 뭘.. 말하는건지 난.... (우물쭈물한 표정이다. 나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살짝 옆을 쳐다 본다.)

나린 (한솔의 말을 끊고 버럭 소리친다) 알고 있잖아!! 내가.. 말... 해줬잖아...

(어이가 없다는듯이 웃으며 회상한다. 나린이 죽기 전 한솔과 했던 오싹해지는 이야기. 죽은 사람이 꿈에 나와 원갈 선물로 주거나, 어딘가 가자고 하는건 그 사람을 길동무 삼으려 데리러 온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나 따라오면 너, 죽어 한솔아. 아니.. (하하 웃는다)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그걸 알고 네가 도망치기를 바랬다고. 아니 그래야하는데. 왜 하자는대로 가자는대로, 내 말이면 다 따라주는거야..? (울음 섞인 화를 토해내듯)

나린의 팔을 붙잡은 손을 놓는다.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손톱을 톡톡 소리가 나게 뜯고 있다. 마치 변명거릴 찾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을 응시한다.

나린은 그런 한솔을 손을 그만하라는듯 잡고있다.

한솔 (고개를 들지 못한채로 눈물이 뚝뚝 흐른다) ... 그래도, 좋으니까..

나린 (조금 놀란듯한 표정. 그래도 다시 담담해진다.) ..그럼 안돼. 진부한 이야기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사람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와, 한솔아.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무뎌져야하고, 버텨내야해. 버티는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거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거야.

칙칙했던 바다의 색이 맑아지고 해가 가장 강하게 빛난다.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가 시원하게 퍼진다.

4 / # 모래사장 / 저녁

둘은 아까보다 진정 된 상태로 모래사장에 앉아있다. 차지 않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날린다.

한솔 그런데,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버티고 무뎌지는건.. 어떻게 해야해? 나.. 못버텨서 이렇게.. (집안꼴을 상상하며) 된 것 같은데...

나린 (허공을 응시하며 고민한다) 글썄.. 사실 나라고 잘 아는건.. 아니야. 그냥... 으으음...

무언의 시간이 조금 흐른다. 그러다 생각났다는듯이 입을 여는 나린.

나린 예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고, 뭔지 알아?

한솔 빨간.. 뭐?

나린 그러니까~ .. 한솔아. 절대로 코끼리를 떠올리면 안돼!

한솔 (당황한다) 뭐? 무슨.. 갑자기?

나린 어때? 오히려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지 않아? 그런것처럼, 원래 잊으려고, 떠올리지 않으려고 할 수록 더 떠오르게 되어있어. 그러니까 그냥...나를 생각해줘. 나와 있었던 일들. 나를 추억해줘. 감정은 휘발성이야. 쓰면 쓸 수록 사라지게 되어있어.

한솔 (우물쭈물한 표정으로) 하지만.. 난.. 너, 너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린 (한숨을 쉰다) 다 좋은데.. 이게 너의 제일 안좋은 단점이야...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날 너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지말아야 한다구. 내가 너한테서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 만큼 빈자리가 남으면 안되는거야. 난 네가 살아가는데 있어 플러스 알파여야하지.. 너는 너인채로. 나는 나인채로....

나린은 그 말을 끝으로 한솔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듯한 표정이지만 아까 보단 편해진 표정으로, 나린의 머리에 살짝 기대 눈을 감는다. 잠이 쏟아진다.

5 / # 병실 / 새벽

눈을 뜬 한솔의 시점. 새하얀 천장에 LED조명이 달려있다. 몽롱한 정신으로 눈동자만 움직여 주위를 둘러 본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 부모님이 옆에 잠들어계신다. 친구도 몇.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친구가 깨어난 한솔을 보며 놀란다. 간호사를 부르러 뛰쳐나간 친구를 뒤로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깨어난다. 힘이 안들어가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짓는 한솔. 창 밖을 바라본다.

나린의 말을 회상한다.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무뎌져야하고, 버텨내야해.

버티는 수 밖에 없는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거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거야.

6 / # 한솔의 자취방

건강해진 한솔의 모습. 깨끗하게 정리된 방 안. 빛이 드는 침실.

책상 한 구석에 잘 정리 된 나린의 물건들. (액자. 커플링. 등)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린의 액자를 바라보는 한솔의 뒷모습이 보인다.

The end.